

성서탐험 1

탐험출발! 우리의 성경탐험은 우주여행보다 더 광대한 시공을 훑어나가는 여행입니다. 출발지점은 당연히 역사의 시작과 만물의 기원을 다루는 **창세기**!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존재의 깊은 비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망가뜨려진 인생을 구원해 참모습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구원역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창세기는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가 타락과 홍수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의 계보) 이스라엘이 당당한 한 언약백성 (covenant people: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단순한 “민족”은 아니며, 국가체제가 없었으므로 “국민”이랄 수도 없음. “인민”이라면 공산주의, “백성”은 왕정시대의 흔적이 느껴져서...마땅한 말을 쉽게 찾기가 어렵군요)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생활 (400년! 일본의 조선통치가 35년 9개월이었음)을 거친 이스라엘이 대장정에 올라 광야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뼈대가 되는 성막, 십계명과 율법, 제사제도, 12지파의 조직화 등이 이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홍해 도하작전 (찰스 헤스턴과 올 브린너의 개성이 빛나던 옛날영화 “십계”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최근의 Prince of Egypt)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지요.

레위기는 제사제도의 원리와 실행지침을 설명한 일종의 전문적 매뉴얼입니다. 읽고 있으면 뭐가 뭔지 골치만 아파서 성경통독에 도전하는 초심자들이 이 책에서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이토록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쏟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제사제도가 폐지되었다고는 해도 예배드리는 자세와 정신 (어떤 운동이나 단체의 신조를 스피릿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은 여전히 진지하고 정성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떠난 이집트의 모든 것이 괜히 그리워지는 애매한 심정이 되면서 불평으로 날밤을 지내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마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 그대로지요. 약속의 말씀에 믿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민수기를 열심히 읽고 광야생활을 성공적으로 마감하는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총괄, 요약하는 성경을 갖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저만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고별설교 (Swan Song of Moses)입니다. 1-11장은 주로 권면적 성격의 도입부, 12-33장은 본격적인 율법강해입니다.

성서탐험 2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나안 정복과 왕정시대를 중주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키워드는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꿈같은 그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험난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족했지만, 일단 약속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힘에 부치는 (사실은 불가능한!) 정복전쟁의 과제를 맡기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탱해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Miracle Food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중단되고, 이스라엘은 땅을 갈아 농사를 짓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배워야 했던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지요.

사사기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위대한 영적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추방)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토착민의 추방을 포기하고 그들과 타협, 공존하면서 가나안 우상숭배와 성적방종의 맛에 길들여져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족속들의 외침에 시달리면서 출애굽의 감격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숭고함도 다 잊어버린 채 초라하고 비굴한 생존을 이어갑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건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Temporary Leader였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울부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의 고리, 발작적인 신앙생활의 슬픈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룯기는 금요일 강해설교 시리즈로 다루고 있어서 이미 친숙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룯이 삶의 척박함 속에서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찾게 되는 이들의 인생 스토리는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룯기는 “그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로 끝나는 사사기를 이어받아, 룯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나울 다윗왕의 족보로 마무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왕정사인 사무엘-열왕기로 자연스런 연결을 지어줍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을 교차시켜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공과 명예, 인간적 매력으로 시작한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에 비해, 무명의 시골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발탁되어 이스라엘 역사의 기둥이자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서게 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왕실의 음모, 정치술과 모략, 내란과 국제전 등 스케일 큰 사건의 전개는 물론, 이복형제간의 질서와 경쟁, 간음과 근친상간, 암살 등 숨가쁜 상황들의 연속으로 인해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는 세속 문학비평가들도 “최상급의 문학작품”으로는 두말없이 인정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을 이은 솔로몬 왕과 그 후대에 분열된 남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조에게 선포되었으므로 역사의 정통성은 단연 남왕국 유다에게 있지만, 열왕기가 개별적 왕들의 치적을 평가한 대목들을 읽어보면, 개인의 순종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혈통의 정통성보다 우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제사이며 개인의 영성이 전체성 앞에 몰살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편파적인 단견이며, 인간적 왕조가 아니라 왕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성경의 관심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상하는 창조에서 시작해 유다의 몰락과 포로기까지를 다루는 역사서로서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라는 역경을 거쳐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역사의 관찰을 통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 비해 신학적 해석이 더 많이 가해진 역대기는 정치, 경제, 군사 등등 세속적 역사해석의 중심적 틀을 상대화하면서 영성과 신앙이 역사전개의 핵심임을 뚜렷이 부각시켜 놓은 “뜻으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서탐험 3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지난 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적하며 각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 역사의 고비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시편은 글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시집 (anthology) 입니다. 150편의 시가 다섯 권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정서가, 역사 속에 일하시고 개인과 만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필터를 통해 농축된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격스러울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의심이 올 때,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시편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책이 (283회 중 116회) 바로 시편이라는 사실은 이 책의 신학적 가치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찬양과 고백인 반면, 예언서 (이사야 - 말라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이 당시 고대근동의 보편적이었던 미신, 주술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바로 예언서들이 힘있게 선언하는 윤리적 영성입니다. 인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리는 주술 (magic)과 달리 구약신앙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인간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데 본질이 있다는 점을 주전 8세기에 활동한 미가라는 예언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이사야는 내용과 문학성의 뛰어남으로 인해 예언서 중의 예언서라고 흔히 불려집니다. 전반부 (1-39장)의 중심관심사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사귀이어야 할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의식(ritual)과 무의미한 제도로 타락한 데 대한 경고와, 그 결과로 닥칠 포로생활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탁월함은 죄악과 심판에 관한 무거운 메시지 속에서도 궁극적 해결자이신 메시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데 (9장: 동정녀 탄생; 53장: 고난받는 중)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기록된 예언의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large books) 대 예언서 혹은 대 선지서 (major prophets), 나머지 12 예언서는 (호세아 - 말라기) 짧은 분량 때문에 소 예언서 혹은 소 선지서 (minor prophets)로 흔히 분류되는데, 이것은 각 예언서의 가치에 관한 평가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탐험 4

절망의 사선을 넘어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주전 586년) 정치적 독립의 상실 뿐 아니라, 성전과 제사제도를 뼈대로 하는 제의적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대근동의 각 나라들은 (앗수르, 이집트, 바벨론 등)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건축했지만, 야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성막은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역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머무실 분이 아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엘리와 아들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착각했다가 궤를 빼앗기고 자신들은 죽음을 당했던 사건은 하나님이 건물과 제의(ritual)에 매인 우상신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리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고토가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거룩한 땅과 거룩한 도시, 그리고 성전의 파괴가 현실로 일어난 마당에,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둘째는 성전과 제사가 없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길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포로기 선지자들의 중심과제였으며, 그 결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윤리성의 강조가 두드러졌던 8세기 예언서들과 달리, 제사제도의 언어와 형상을 빌어 하나님의 초월성과 순수한 신앙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조명해준다. 에스겔의 비전들은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견주어 볼 수 있는 독특하고 난해한 표상(imagery)을 빌어 묘사되고 있어서 신비주의 전승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하박국은 바벨론 유배를 다룬 예언자들 중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지를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던 선지자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악해서 심판을 하신다 치자. 이스라엘을 짓밟은 나라들은 그보다 더 사악하고 잔인했는데, 택하신 이스라엘을 심판하느라 그들에게 어부지리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하박국이 받은 응답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혹은 신실함으로) 인해 산다는 진리이며, 후에 신약성경에서 구원의 본질을 요약하기 위해 인용되었다.(롬1:17)

철옹성으로 믿어졌던 바벨론은 놀랍게도 메디아-페르샤 연합군에 의해 단숨에 격파되었다. 하나님은 페르샤로 하여금 바벨론의 피정복민 집단이주 정책 대신 현지민 자치권을 인정하는 노선을 택하게 하였고 (페르샤 왕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부르심), 페르샤 정부는 이스라엘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재정과 인력을 지원했다. 포로 생활에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한 첫 세대를 향해 예언한 학개와 스가라는 성전의 재건이 정치, 경제적 인프라 정비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서적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읽어도 무방할만치 내용이 연결되고 있고, 책의 이름이 된 두 인물 역시 이스라엘의 귀환과 국가재건 과정 내내 정치와 (총독 느헤미야) 신앙 (학사 에스라) 양 축을 지탱하며 지휘해 낸 명콤비였다. 이 두 책의 중심사건은 소위 watergate revival, 즉 귀환한 이스라엘인들이 과거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던 수문 앞 광장의 대 집회이다.

성서탐험 5 영원을 바라보라

이사야 40-66장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의 마지막에 드러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형식과 미신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꾸짖는 전반부 (1-39장)가 바벨론 포로생활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데 비해, 후반부 (40-66장)는 포로기와 그 이후의 회복기에 이미 들어온 듯한 관점에서 뗏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압축해서 바라보는 예언서의 이런 시각을 Prophetic Zooming-In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6장),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고통의 포로기 70년이 지나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사 60:1, 20)”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본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 내지 국가의 회복을 넘어, 메시아를 통해 피조세계 전체의 회복을 이루시는 우주적 복음이라는 점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라 불리우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과 상함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 65:17, 20, 25).”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더해진 모든 왜곡과 소외가 원인해제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의 이 비전은 그 웅장함과 미래성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최후예언과 짝을 이룹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21:1, 4).”

스가랴 9-14장은 미래적 비전과 메시아 예언으로 인해 구약의 묵시록이라는 호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9장의 예언들은 교회에게 큰 위로를 준 말씀입니다: “나의 딸 시온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딸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위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9)”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양 떼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로다 (9:10, 17).”

**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낙오하지 맙시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켜내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계 2:26).”

성서탐험 6 새 역사의 시작

다니엘이 이상 (vision)을 통해 본 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질풍노도와 같은 마케도니아 앞에 무릎을 꿇은 충격이 지나기도 전에 청년 알렉산더 대왕은 급작스런 죽음을 맞았고 그에 따라 근동의 역사는 극심한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소아시아를 덮는 광대한 영토를 놓고 벌어진 패권경쟁은 마침내 탁월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로마제국에 의해 평정되고, 수백년 간 심각한 도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로마의 평화” *Pax Romana* 가 지속되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구약의 예언이 종결된 지 이미 400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열새없이 뒤바뀌는 지배자들 앞에 속수무책인 채 메시아의 도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영적인 공백과 절망적인 현실의 어두움이 가장 깊어져 “때가 차매” (갈 4:4) 이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친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요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 사건 (*The Event*)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상처입은 한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찾는 그이가 바로 나다.” (요 4:26)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전체적인 형식이 전기체 (*Biography*)라는 공통점 때문에 공관복음 (같은 관점: *Syn-optic Gospel*)이라 부릅니다. 세 복음서간의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예수님의 인상 (*the dominant image of Jesus*)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지만,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이신 예수를 강조했고,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그리고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를 잘 보여준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공관복음과 비교할 때 요한의 복음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행적은 매우 선택적으로 다루는 대신 예수님의 강화 (*discourse*)를 치밀하게 기록, 배열함으로써 예수라는 존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교리로는 의심이 없지만 예수님이 인격체로서 실감있게 와닿지 않으시면,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자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예표적 형태로서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의미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오순절의 성령강림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역시 구성원과 건물, 조직, 재정과 프로그램 등 모든 사회학적 변수들을 지니는 집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근원적 변수인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특별한 집단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기술입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숨결 (*inspiration*)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섭리를, 복음서가 예수님의 회생을 보여주었다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를 향해 자유로이 말씀하시고 자기 뜻을 알리시며 사람들을 움직여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 사도행전 속을 걸으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성서탐험 7 기다리는 사랑

탐험 마지막 주입니다. 광활한 성서의 세계를 7주만에 “탐험”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야심찬 일이었지만, 당신이 탐험 코스를 택하셨든 관광 코스를 택하셨든 성서라는 landscape를 좀더 다른 각도와 거리에서, 그리고 새로운 “느낌”으로 (성경은 단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교감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여행은 성공입니다. 종착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의 서술을 중심으로 하는데 비해, 이번 주에 읽을 책들은 요한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에베소-서, 유다-서 하는 “서”는 “책”이 아니라 “서신”이며, 구식 영어로는 Epistle, 보통 영어로는 그냥 Letter라고 합니다.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이 글들도 누가 (발신인) 누구에게 (수신인) 왜 (저작상황) 보냈는지를 염두에 두면 본문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마련이지요. 신약 서신은 크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바울서신 (바울이 쓴: Obvious!)과 나머지 8권의 공동서신 (공동은 누군가? Not so obvious!)으로 나눕니다. 공동서신은 General Letters 아니면 Catholic Letters라 하는데, 여러 사람이 때로 모여 썼다는 뜻은 아니고, 수신인이 명확한 바울 서신과 달리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목사 디모데 등등) “여러 성도들에게” 혹은 “교회들에게” 보내진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울서신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글이어서 목회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서신 중 어느 하나를 골라 성경의 정수니 복음의 엑기스니 하고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중에서 어느 측면을 어느 책이 더 깊이 다루었는지 가려보는 것은 성경의 이해와 기억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구원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와 교회를 통한 성숙이라는 Radical Solution을 제시하셨다는 것이 인간을 위한 좋은 소식 (Good News), 즉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로마서, 구원을 위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보태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갖는 우주적 의미와 교회의 영광은 에베소서, 믿음의 실천적 성격은 야고보서,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히브리서, 삶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목회서신이 가장 탁월하게 가르쳐 줍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가장 독특한 책인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역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묘사된 낙원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인간성 (True and full humanity)의 회복이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 (Reconciliatory work of Christ)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우주적 회복의 마지막 장을 열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범죄 이래로 죄인된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 우리는 이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과의 사귄과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